



“心臟病으로 인한 糖尿病발생

가능성 높다”

「당뇨병은 심장병의 위험인자」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념이었다. 그러나 역으로 심장병 때문에 당뇨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일본 국립순환기병센터 마쯔야마(松山)박사의 조사로 알려져 최근 미국에서 열린 국제당뇨병학회에서 발표되었다.

마쯔야마박사는 1988년 6월부터 89년 5월까지 1년간 일본 국립순환기병원에서 수술한 1백 6명의 협심증 환자에 대해 당뇨병과 합병 상황을 조사, 퇴원후 추적조사했다. 그 결과 심장수술전에는 1백6명중 4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나머지 65명중 53명도 혈당치가 정상보다 높았다는 것, 더욱이 혈당치가 정상이었던 12명중 5명은 혈당치를 낮추는 인슐린의 효과가 보통사람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한다.

그후 마쯔야마박사는 심장수술을 끝낸 환자들을 추적조사, 혈당치를 조사해 보았는데 심장수술후 1년이내에 혈당치가 정상인 사람의 비율은 수술전의 2배 정도가 되었고 재검사를 해본 60명중 40명은 혈당치가 수술전보다도 낮아 있었다는 것이다. 또 심장

수술후 환자의 혈당치가 때때로 정상 의 6배 이상으로 높아 인슐린의 대량 투여가 필요하게 되었지만 심장기능이 회복되는 수술후 2, 3주째부터는 혈당치가 낮아지고 인슐린의 투여가 필요없게 된 사례가 동 병원에서 많았다는 사실도 밝혀내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마쯔야마박사는 심장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인슐린의 작용이 약해지고 당뇨병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하며 당뇨병과 심장병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방법에 이 조사결과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낮은 擴張期혈압도 患者의 사망률 높여”

아직 메커니즘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낮은 확장기혈압이 기존의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환자들 사이에서 보다 높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British Medical Journal誌의 한 연구결과에 의해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확장기혈압(최소혈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망위험성도 낮

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은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나온 자료에 근거를 둔 것이 대부분. 심장병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는 확장기혈압과 사망위험성 사이의 관계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이 연구는 심근경색증의 병력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장기혈압과 사망률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플라밍햄스터디에서 나온 자료를 이용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심근경색의 병력을 갖지 않은 환자들 사이에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수축기혈압과 확장기혈압 모두와 선형(line)으로 관련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심근경색의 병력을 갖는 환자들 사이에서 관상동맥질환과 확장기혈압사이의 관계는 U자형의 곡선으로 나타났다. 즉 사망률은 75에서 79mmHg에 이르는 확장기혈압을 가진 환자들 사이에서 가장 낮아 확장기혈압이 95mmHg 이상인 사람보다 2배나 높았고 70mmHg 이하의 확장기혈압을 가진 사람들의 3배에 달했다.

이러한 관계는 고혈압치료와 다양한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들을 조정 한 후에도 지속됐다. 비심혈관성 사망과 혈압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발견되지 않았다.

심근경색환자 병원치료 늦어 사망

많은 사람들이 심근경색을 일으킨 후 너무 늦게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잃고 있다고 최근 독일 마부르크 심장재단이 주의를 촉구했다.

마부르크심장재단에 의하면 심근경색을 일으킨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시간은 평균 7시간을 초과하고 있는데 늦어도 4~6시간 이내에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는 응혈(凝血)을 제거해야만 심장의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재단측은 이처럼 병원치료 시간이 늦어 구서독지역의 경우 매년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20만명중 40%에 가까운 7만6천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식생활지침

- ① 여러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읍시다.
- ②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알맞게 먹읍시다.
- ③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먹읍시다.
- ④ 과음을 삼갑시다.
- ⑤ 식사는 규칙적으로 즐겁게 합시다.